

매운 유제품, 뜨거운 겨울

상하이지사

대중 선호도 높은 매운맛과 유제품의 결합

- 최근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풍미가 바로 매운맛이다. 살짝 매운맛부터 자극적인 매운맛에 이르기까지 많은 소비자 분들이 매운맛을 즐긴다.
- 매운 성분을 첨가한 치즈와 사워크림 등은 이미 흔한 제품이지만 매운 아이스크림, 요구르트, 조미우유 등은 신제품으로 개발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유제품의 유당은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고, 유지는 매운맛의 자극적인 느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서 매운맛과 유제품을 결합하면 매콤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다.
- 통계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(1984년~2000년 사이 출생자) 중의 80%는 후추와 고추맛 식품을 선호하며, 2016년에서 2026년까지 매운 유제품의 연간증가율이 6.2%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.

다양한 업체들이 내놓는 매운 유제품

- 2017년부터 이미 여러 유명 간식브랜드 업체들이 매운 유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. 마르스라는 업체는 중국에서 매운맛 스니커즈를 출시시켰고, 명뉴(蒙牛)에서도 쓴맛, 매운맛, 짠맛 요구르트를 출시했다. 맥코믹(McCormick)은 French's mustard 및 Frank's RedHot 등 매운맛 유제품 조미료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다.
- 미국 Escape Brands는 최초로 'Hot Scream' 시리즈의 아이스크림을 출시하였으며 딸기맛, 초콜릿맛, 바닐라맛 등을 매운맛과 믹스해 많은 인기를 얻었다.

매운맛 강국다운 제품개발 필요

- 세계인들의 인식 속에 한국식품의 이미지는 바로 매운맛이다. 가장 대표적으로 김치도 그렇고, 몇 년 전부터 입소문을 타고 잘 팔리는 '불닭볶음면'도 아직 인기가 많다.
- 매운맛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가 높은 만큼 한국기업들은 매운맛을 활용한 유제품, 요구르트 등 더욱 창의적인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

매운 아이스크림



맥코믹의 매운 소스